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 준공식 익산시 왕궁면에 조성 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건강기능식품 원료 제조업체인 ㈜비티씨가 29일 공장 준공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돌입했다. 준공식에 참여한 정헌율 시장과 소병홍 익산시의장,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등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이다.

도교육청, 교사 성추행 논란 학교 엄정처벌

부안 한 여고 교사 학생 성추행 의혹 관련 학교교육과 등 3개 과 투입 감사 진행

최근 부안의 한 여고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이 법적 처벌 여부를 떠나 엄정 처벌하기로 했다.

29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부안의 한 여고 체육교사가 수년간 제자들을 성 범죄(성추행·성희롱 등)를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성 범죄 이외에도 성적조작 등이 이뤄졌다는 제보가 쏟아지면서 도 교육청 또한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현재 도 교육청은 학교교육과와 인성건강과·감사과 등 3개 과가 투입 돼 논란이 일고 있는 해당 학교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의 핵심은 성 범죄와 학생 성적조작, 교사 채용비리 등이다.

이처럼 감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도 교육청은 이번 사안에 대해 강력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를 떠나 학급 감축 등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경미하든, 중대하든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며 "아이들의 학습 선택권 등이 있는만큼 해당 학교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체육교사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체육교사로서 학생들의 자세 교정과 교육을 위해 지도했을 뿐 성추행이나 성희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을 보면 현재까지 경찰조사는 25명,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40명, SNS상에서는 1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정해은 기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시민들과 만든다

특색있는 출생정책 마련 위한 '전주형 저출생대책 다울마당' 운영

전주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육아·보육 전문가와 다둥이 부모, 신혼부부, 청년 등 시민들과 함께 만들기로 했다.

시는 29일 전주도시혁신센터 교육실에서 날로 심각해져 가는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전주만의 특색 있는 출생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전주형 저출생대책 다울마당' 발대식을 가졌다.

전주형 저출생대책 다울마당은 유아교육과 교수와 가정교육과 교수, 사회학과 교수 등 관련 전문가와 다둥이 아빠·엄마, 주부카페 운영진, 신혼부부, 청년대표, 의료계, 종교계 등 각계각층의 시민 17명과 관계공무원 7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출생정책을 마련해 전주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게 된다.

이날 첫 다울마당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추진중인 전주시 출생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임신과 출산, 육아, 교육, 청년문제 등 각 분야별로 새로운 출생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등 열띤 토론을 펼쳤다.

참석자들은 또 저출생 대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긴밀한 협조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출생장려 정책으로 난임부부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임산부 엽산제·철분제 지원, 임산부 모유수유교실 운영, 순산체조교실 운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등 다양한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영유아 마사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넷째아 이상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등의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예비부부 건강검진 등 모자보건 사업 등 보육·양육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다울마당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모아 출산·양육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 가치관을 고취시키고, 전주시가 출산·양육 친화적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공감형 출산정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전주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자활연수원 교육 참가

전주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80명이 29일부터 오늘까지 1박 2일 동안 한국자활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성장과 힐링 과정' 교육에 참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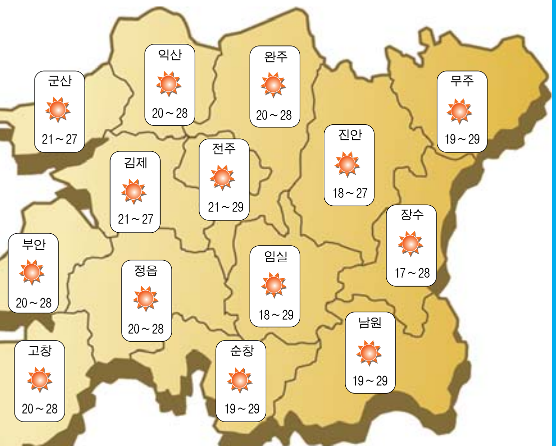
이번 교육은 경제적 빈곤 등으로 자신을 돌아보거나 문화적 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한 체 어렵게 살아온 자활근로자들에게 취약계층 자립지원 전문교육기관인 한국자활연수원의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서 교육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자활참여자의 자활사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대인관계를 개선해 참여자들이 당당한 사회일원으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자활근로자들이 사회적응력과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6월 30일 금요일 해뜸 05:16 | 해짐 19:51 달뜸 22:47 | 달짐 10:39

날씨 최저기온 18~22도 최고기온 25~29도



박연한 전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올해의 '미소국가대표' 선정

전주시 문화관광해설사인 박연한 씨가 (재)한국방문위원회에서 선정한 '2017년 미소국가대표'로 선정됐다.

전주시에 따르면, (재)한국방문위원회가 최근 공개모집한 2017년 미소국가대표에 전주한옥마을과 경기전에서 영어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연한 씨가 관광안내 분야 미소국가대표로 위촉됐다.

박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전주시에서 영어담당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면서 TPO 한국총회와 전주포럼 등에서 말레이시아 이포시와 페낭시 시장, 그리고 전주를 방문한 미국 싼타페 시장과 호주 시드니 시장 등 각국 시장단의 해설을 맡아 전주한옥마을과 경기전을 안내하는 등 외국인들에게 전주관광을 알리고 활성화하는데 노력한 점이 인정돼 미소국가대표에 선정됐다.

그는 근무처인 전주한옥마을과 경기전에서 매일 운영되는 영어권 관광객들을 위해 정기투어와 수시투어 등 영어해설을 담당하고, 국내외 외국인 해외여행사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관광설명회와 팸투어 등을 진행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환대서비스가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재용 기자

법원 "자림복지재단 설립허가취소 정당"

장애여성 성폭행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전주 자림복지재단(자림원)의 법인설립허가 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29일 자림원이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전북도)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자림원 성폭행 사건은 장애인 복지시설의 전 원장 조모씨 등 2명이 지난 2009년부터 수년간 4명의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했다가 직원의 고발로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이른바 '전주판 도가니'로 불렸던 사건이다.

조씨 등은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 받았으며, 이들에 대한 형은 2015년 5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후 전북도는 자림원 전 원장과 이사 7명 등 총 10명에 대해 임원해임명령을 내렸으며, 같은해 12월 14일 법인설립허가취소도 취소했다.

/김민근기자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두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등교시각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아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고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 공동체+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금자리'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